

진홍가슴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學名 Erithacus calliope
英名 Siberian rubythroat



몹시도 무덥던 삼복을 넘기고 팔월 중순을 맞으면 아침 저녁 제법 가을을 느끼게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한반도의 정확한 음력절기는 삼라 만상을 순리대로 이끌어간다.

수많은 들새 중에는 계절을 따라 대이동을 하는 철새가 있고 한곳에 머무는 텃새가 있다.

또 봄과 가을 이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새가 있다.

이 진홍가슴은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나그네새이다.

4월 하순 월동지인 중국남부, 대만 해남도, 인도 필리핀 등지의 동남아시아에서 북쪽의 번식지인 시베리아를 가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해가고 또 6~8월 번식을 끝낸후 10월이면 월동지로 가기 위해 남행을 하면서 통과한다.

이들의 번식지는 실상, 북한의 고준지대인 개마고원에서 부터 시작이 되므로 우리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다시

기록이 될 것이다.

몸길이 15cm.

다갈색의 평범한 색상이지만 숫컷은 턱밑에 영롱한 진홍색 둥근무늬가 있어 귀티가 나고 여기에 상큼한 다리, 시원스럽게 큰 눈은 올새 특유의 매력을 머금고 있다.

주로 관목림, 덩굴, 초지에 서식하며 천적이나 사람을 만나면 얼른 덩굴로 몸을 감춘다.

기분에 따라서는 꼬리를 상하로 움직이고 땅으로 걸기도 하는데, 은신술은 타종의 추종을 불허한다.

봄철 북상시는 대개 분산형태의 도래를 하는데 매년 전라남도 칠발도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확실시 되며 가을철 남행 시에는 서울 인근에서도 난지도, 화전리에서 작은 무리이지만 해마다 관찰된다.

진홍가슴은 명창이다.

기교를 부리며 굴리는 소리는 아니나 나뭇대로의 고음을 구사하며 갖가지 멜로디를 만들어 내는데 한마디로 아름답게 운다.

발정기가 아닌 한국 전역에서의 노래소리는 절정기의 소리를 듣기 어려우나 그런대로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있다. 곤충을 주식으로 하나 곤충의 숫자가 적은 계절에는 식물의 열매 풀씨등을 먹는 잡식성인데 번식기에는 곤충만을 먹는다.

번식은 풀밭이나 숲속의 지상에다 마른풀잎, 풀뿌리, 이끼류를 섞어 밥공기형의 둥근 등우리를 짓고 한 배에 5개 정도의 청록색 바탕에 미세한 자색 얼룩반점이 있는 알을 낳는다.

남하하는 무리 중에는 올해에 번식한 개체들도 섞이는데 숫컷의 경우 진홍가슴 특유의 진홍색 반점이 흔적만 남은듯 흐린 색깔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다.